



풍도에 간다

안산시 지정소식지 | NO. 438

브라보안산

BRAVO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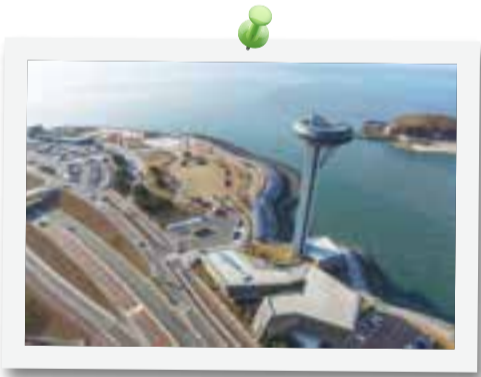


풍도에 산다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행자부 심사 통과 올해 내 도시가스 공급 공사 착공한다 ... ‘주민 숙원 해결’ 조력 · 풍력 · 태양광발전 집중, ‘원전1기 줄이기’ 박차



안산시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 비전 2030’을 선언하고 ‘원전1기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가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부도를 탄소제로 섬으로 만들며 수도권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던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행

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게 된 것. 이 사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위성기지 및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도는 약 4,400세대가 살고 있는 생활터전이자 연간 9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명소지만 에너지 공급 체계가 완전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심사 통과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부미래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며 국·도비 요구뿐만 아니라 사전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대부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연내 착공하고 스마트 팜(farm, 농장), 체육시설, 안전체험관에 안정적으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2030년 전력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를 이뤄서, 궁극적으로 ‘원전1기 줄이기’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도 주민 허(41세, 여) 씨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LPG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불안했다.”며 “편하고 값싼 도시가스가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일”이라고 반가워했다.

이번 행자부 심사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섰던 대부미래포럼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김현삼·원미정 경기도의원, 나정숙·신성철 안산시의원 및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 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 개최한 제8차 포럼에서는 탄소제로 섬 대부도 조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 인프라 실행방안을 연구·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대부도 내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스마트 건물 발전사업, 전기충전소 및 전기버스 도입,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시화호조력발전소 및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273)



안산시상인회, 중기청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 확보, 상권활성화 청신호... “상인 주도 최초 사례”



상인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지역 내 4개 상인회에서 시와 협의한 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7개를 신청했고, 그 사업이 모두 선정돼 국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산시 최초로 상인이 주도한 국비사업 유치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상인 참여사업의 첫 결실로,

이후 다른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가 목표하고 있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등록 확대, 나아가 상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권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상인대학 개최 및 전통시장 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전개함으로써 상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갖추도록 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상권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예술광장(월피동, 성포동)과 선부광장(선부동 인근) 주변의 상점들이 상인회에 등록됐으며, 올해에는 스타프라자(성포동), 신안프라자, 신안코아, 월드프라자(이상 본오동)가 각각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우리시 상권 규모로 볼 때 1억여 원의 국비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상인이 주도해 정부 공모사업에 최초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상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더 많이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시는 향후 전통시장 8개, 상점가는 26개까지 늘려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약 237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4)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개정법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 ⇒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신설)
 - ⇒ 뒤통스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 ⇒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명확화

-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으로 금지장소 규정(개정)
 - ⇒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법률에 직접 규정, 개찰구 밖은 명함배부 허용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야간) 02-502-1003

1390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

안산시&수도권기상청

대기환경 개선 위해 ‘기상기후정보 활용’ 협약 시 “바람까지 분석... 과학적 행정을 도시재생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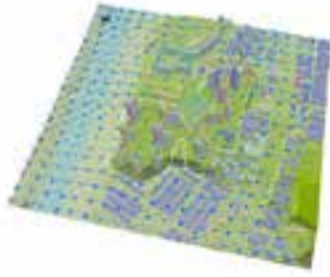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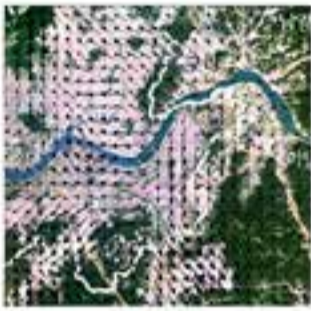
지난 3월 7일, 안산시는 수도권기상청과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기상청 기상기후 정보서비스 융합과제로 안산시가 제안한 ‘경기 서해안 바람정보 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상청은 ‘바다와 시화호를 끼고 있으며 공단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안산시를 기상기후정보 활용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지로 주목했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이 잘 구현되어 있는 안산시가 기상기후정

보를 도시행정에 접목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상청은 안산시 상세바람 특성분석 등 도시기후에 관한 정보를 안산시에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산시는 기상기후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기후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산지역 곳곳의 바람, 기온 등의 정보가 담긴다. 시는 바람정보 등 주요 기상자료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형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의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며, “과학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토지정보과(031-481-243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기상기후 정보 시물레이션

안산시, “꽃 가꾸고 길 닦아요”

안산천변 · 봉황산 둘레길, 휴게공간으로 조성



안산천변이 툄립으로 덮이고, 봉황산의 기존 등산로는 순환로로 재탄생 할 계획이다. 시는 안산천변에 하천과 어우러지는 툄립 등 계절 꽃을 심어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월 두 달 동안 안산천 일원 1,110㎡의 흙을 고르고 툄립 7종 9만 송이를 심는다. 5월부터는 지속적인 관리로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오는 상춘객들의 방문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 증가와 레저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등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봉황산 등산로를 둘레길로 조성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봉황산은 밤나무 등 산림 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순환되지 않는 동일 노선의 단조로움 때문에 이용객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새로 조성하는 등산로는 데크와 야자매트, 안전로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훼손된 숲길의 복구·정비를 겸해 건강한 둘레길로 재탄생하게 된다. 강서고등학교 뒷길부터 와동공원을 지나는 약 1.4km가 사업대상지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조현 안산시 녹지과 산림보호계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위해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327, 031-481-234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계층별 인턴사업 진행

미취업자 대상... 현장 실무 경험 제공



안산시는 미취업자의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넓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교육과 인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한 경력 단절여성, 미취업결혼이민자가 그 대상으로 8개월 동안의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 계층별인턴사업’은 지난 1월 접수가 시작돼 청년미취업자 70명, 경력단절여성 59명, 미취업결혼이민자 7명 등 총 136명이 신청했으며, 서면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70명이 선발돼 안산시청 43개 부서, 68개 사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인턴기간 동안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다. 계층별인턴사업은 인턴 채용 후에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사 특강이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대비 실전 훈련을 제공하며, 사업기간 내 취업시험 응시를 위한 유급휴가 혜택과 취업박람회 등의 현장 체험도 마련하고 있다.

안산시 문화예술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공연행사 홍보업무 인턴으로 채용된 박미래(사진·23세, 본오동) 씨는 “졸업 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매년 제가 참여했던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행사인데, 이제는 인턴자격으로 실제 현장에서 직접 도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어 기뻐요.”라고 전했다.

인턴사업 참여자들은 안산시 민원여권과의 여권교부, 자치행정과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세월호 기록물 관리, 국가 암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보조로 활동하며 취업을 위한 실무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2279)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2017년 예산기준 안산시 재정 공시

살림규모 2조8,849억 원... 재정 상태 '매우 양호'



예산현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등(이하 재정운용)이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시의 2017년 살림규모는 2조 8,849억 원으로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653억 원이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5,232억 원이다. 또한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3,964억 원이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합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00억 원의 흑자”라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재정 공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예산 공개시스템(<http://fin.iansan.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예산과(031-481-2863)

안산시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7년 예산기준 안산시 재정을 공시했다. 공시 항목은 세입·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이상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이상 재정여건), 성인지예산현황, 주민참여

안산해양아카데미 해양체험

“순풍에 돛 달고 바다를 가르다”



대부도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 탄도바닷길이 열리면 바다가 갈라지며 '모세의 기적'이 펼쳐진다. 누에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루 두 번뿐. 비록 물때는 맞추지 못했지만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가르고 싶다면 어촌박물관 뒤쪽의 안산해양아카데미를 찾아보자. 안산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안산시요트협회(회장 강명효)는 크루저요트, 카약, 래프팅 등 해양체험 프로그램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특히 크루저요트 체험은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 30분, 11시, 오후 1시, 2시 30분, 4시 등 다섯 차례 운행한다. 체험비는 1만 원이다. 강명효 회장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돛과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세일(sail) 요트는 비용과 환경오염을 걱정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항해까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어요. 선박 중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요트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해양체험이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체험객들은 비상시 대처 요령과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요트에 올랐다. 요트가 선착장을 떠나 천천히 움직이자 요트를 조정하는 크루(crew)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돛을

올리고 돛을 당기거나 풀어 좌우를 살피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해 킬러(Tiller)를 움직이며 배의 방향을 잡는다. 왼쪽으로는 전곡항을 오가는 낚싯배들이, 오른쪽으로는 세 개의 풍력발전기와 길게 누운 누에섬이 보인다. 요트가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속도를 맞추며 난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갈매기도, 먹이를 주는 이들도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다. 해무(海霧)에 대부도와 영흥도가 멀리 아스라하다. 제부도의 빨간 등대를 기점으로 되돌아 나오는 길, 꽃을 든 청년이 무릎 꿇고 여자 친구에게 선상 프러포즈를 한다. 흥조 띠 얼굴로 꽃을 받아든 예비신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보였다. 김종삼 씨(30세, 천안시)는 “대부도 방조제를 드라이브하고 갯벌체험과 낚시도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무척 설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다 위 프러포즈를 로맨틱했다며 아주 마음에 들어 하네요.”라며 엄지를 들어올렸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952)
www.ansanyacht.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소식通

안산시,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분유 24개월 지원

안산시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8만 원)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신청 시점부터 만 24개월까지 월 6만4천 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천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뒤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오프라인),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마켓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2563)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안산시, '원전1기 줄이기' 박차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참여 세대 모집

안산시는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원전1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500W 이하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추진과 연계해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13년부터 안산 특화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현재 734세대에 보급이 완료됐으며, 전체 보급 세대의 연간 발전량은 243,046kWh로 연간 55,900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설치 용량 500W기준 전기사용량에 따라 연간 6만~19만 원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문의는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란(태양광 발전기 보급),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812)

챌린지 최고의 돌풍, 안산그리너스FC

안양 FC 잡고 홈 2연승... 후반72분 루카 '결승골' 4월 1일 안산에서 부천FC와 한 판 승부, 홈 승리 이어간다



신생팀으로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산그리너스FC가 'KE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라운드에서 FC안양을 1:0으로 제압하며 홈 2연승을 기록했다.

안산은 라울, 나시모프를 최전방 투톱으로 세우고 장혁진, 정현식, 이민우, 이건을 중원에, 유연승, 박한수, 이인재, 송주호를 뒷문에 두며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2연패의 수렁에 빠져 갈 길이 급한 FC안양을 상대로 안산은 초반에 수비를 안정시키며 역습 전술을 펼쳤다.

전반 6분 라울의 날카로운 슈팅을 시작으로 이후 나시모프와 이민우도 과감한 슈팅을 기록하며 안양의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을 0:0으로 마치며 탐색전을 끝낸 양 팀은 후반 초반부터 결정적인 기회를 한 번씩 주고받으며 선제골을 터트리기 위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경기의 균형은 후반 루카의 투입과 함께 깨졌다. 경기장에 들어선지 3분 만인 후

반 72분 박스 안으로 침투해 필사적으로 밀어 넣은 슈팅이 오른쪽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1, 2라운드에서 줄곧 후반 교체 투입 자원으로 활용되던 루카는, 19일 경기에서 기존보다 조금 이른 시간대에 투입돼 결승골을 기록했다.

경기 후 이흥실 감독도 "루카는 항상 경기 하루 전 날 내게 와서 몸 상태가 좋다고 말한다. 그만큼 욕심이 있는 선수다. 몸싸움과 골 결정력이 타고난 선수다"라며 루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산그리너스FC의 다음 경기는 3월 26일(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FC와 있으며, 홈경기는 4월 1일(토) 부천FC와 일전을 거룬다.

게임	상대팀	스코어	골
1차전	대전시티즌	2:1 승	 나시모프((42분)  한건용(92분)
2차전	부산FC	1:3 패	 유연승(27분)
3차전	안양FC	1:0 승	 루카(72분)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물 사랑 워터투어' 운영 '상록水' 수돗물, 궁금하면 방문하세요!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장체험과 동영상 시청으로 진행된다.

안산시는 1997년 경기도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신뢰성 있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6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통해 주 5회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실시 등을 통해 수돗물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과 물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유아,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이상, 13년 동안 약 7만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물 사랑 워터투어'는 3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는 연성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수돗물의 정수·하수처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코스는 연성정수장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정수처리공정의 시설물을 견학하며 처리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코스는 물 홍보관을 방문하여 홍보영상 시청, 시설 관람과 함께 모형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물 사랑 워터투어'는 3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는 연성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수돗물의 정수·하수처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코스는 연성정수장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정수처리공정의 시설물을 견학하며 처리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코스는 물 홍보관을 방문하여 홍보영상 시청, 시설 관람과 함께 모형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물 홍보관 견학을 온 하도담·유태현(양지초 1) 학생은 "깨끗한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오늘 부터는 소중한 물을 아낄 수 있도록 양치할 때 꼭 물을 잠글 거예요."라고 다짐했다.

최현숙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은 "올해는 고잔동 소재 안산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시흥시 소재 연성정수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물 사랑 워터투어'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ansan.net/열린광장/견학신청>)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2017 한·독 도시교류포럼' 개최

시민 중심의 기억문화 형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다

안산시는 희망제작소 및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과 함께 '2017 한·독 도시교류포럼'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기억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치단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1일, 22일 이틀 동안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목민관클럽 제 19차 정기포럼'으로 진행하며, 23일은 기억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포럼을 개최한다.

발제는 안산시 관계자와 독일의 팀 레너(Tim Renner) 전 베를린 문화부 장관 및 미샤일 파라크(Michael Parak) 반값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기억문화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3월 22일(목)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는 대중포럼은 4·16 세월호의 기억, 5·18 광주 기억 등 '우리 시대 기억의 조건'에 관한 사례발표가 준비돼 있다.

참여 방법은 안산시 및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에도 직접 국제회의장을 방문해도 된다.

◇ 문의 : 안산시 기획법무과(031-481-2801)



오로지 '의자'만을 생각하는 (주)파트라

“세계 최고의 의자 만들 것”



한상욱 부사장

1985년 의자 금속부품을 생산하던 철공·도금업체 '현대금속'은 1990년 안산에 자리를 잡았고, 2000년 완제품을 만들어 '파트라' 브랜드로 해외시장 문을 두드렸다. 이후 (주)파트라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70여개 나라에 사무용 의자를 수출하는, 연 매출 300억 규모의 기능성 의자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국내 최초 사무용 의자 수출한 선도 기업

2000년 당시 단순한 철제의자가 아닌 제대로 된 사무용 의자의 수출은 파트라가 국내 최초였다. 매년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주문을 따낸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다른 업체들도 하나 둘 동참했다.

파트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매출액 절반이 해외에서 나온다. 해외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 연구개발(R&D)에 집중했다. 차별화한 기능을 탑재한 기능성 의자 '파트라'가 한국에서 낯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자연구소 운영, 매출 7%를 R&D에 투자

파트라는 전체 직원 90명 가운데 연구직·디자이너가 8명이다. 2006년부터 부설 의자연구소 설립해 매출액의 7%를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다. 이런 투자 덕분에 미국 특허 2건을 비롯해 국내외 특허 12건을 따냈다.

파트라의 플로(FLO) 제품은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굿 디자인' 최우수상도 2년 연속 수상했다. 주력 상품인 리브라(LIBRA)는

2014년 한국 인간공학 디자인상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허리가 지지되는 링크 구조로 특허를 받아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동용 의자인 제미니



(GEMINI)는 한국 감성과학대상과 핀업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체형·체중에 따라 의자도 스마트해진다

인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무원들을 위한 오피스 제품들이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춰 탄생하고 있다. 사용자의 체형과 체중, 자세에 따라 의자가 변하는 시대, 안산시 강소기업에 선정된 파트라와 생산기술연구원의 협업으로 의자가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들은 좌판과 등판이 동시에 기울어져 사용자에게 맞춰지는 틸트에 주목했다. '체중 감응형 틸트 메커니즘'으로 착석의 편안함에서 한 발짝 나아가 극강의 안락함을 제공, 앉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

한상욱 파트라 부사장은 "이번 강소기업 과제를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사엽 수석연구원을 만나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에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보유한 생기원, 10년 넘게 의자를 연구해온 특화된 데이터를 가진 전문가, 깔고 앉는 걸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파트라가 만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파트라가 개발한 의자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트라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비자 곁에서 세계 최고의 의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뤄내려고 합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 문의 : (주)파트라(031-494-2616), www.patrakorea.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서해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햇살 좋은 풍도”

겨우내 숨죽이며 때를 기다려 피는 야생화를 만나기 위해 서해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 온다는 섬 풍도를 찾았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서해누리호는 대부도 방아머리항, 육도를 거쳐 풍도로 향했다. 하루에 단 한 대뿐인 배는 주말이면 야생화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주말을 피해 햇살 좋은 평일, 배는 1시간여를 달려 풍도에 닿았다.

삼태기 모양의 섬에 펼쳐진 마을은 말 그대로 아기자기하다. 선착장에서 마을로 가는 길목에 바다를 운동장삼아 대담초 풍도 분교가 자리하고 있다. 학교 담벼락에 그려진 돌고래와 노랑 파랑의 줄무늬 물고기들이 금방이라도 바다로 헤엄쳐나갈 듯 생동감 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북동쪽에 모여 산다. 야생화를 보려면 해발 177m 후망산을 올라야 한다. 산으로 오르는 길, 섬사람들의 소박한 살림살이가 눈길을 끈다. 커다란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가 마당 밖 길가로 나와 있다. 돌절구와 절굿공이, 장화 두 켤레, 줄에 매달린 망둥이, 아귀가 빨래와 함께 별을 받고 있다. 식당이 없는 풍도에서는 민박집이나 펜션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관광객들과 먹거리를 나누는 주민들의 손길이 정겹다.

가파른 경사에 숨이 차오르는 산 중턱,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서 있다. '이괄(1587~1624)의 난'을 피해 풍도로 피난 왔던 인조가 심었다고 한다. 은행나무 뒷길로 접어들자 수풀 사이에서 셋노란 꽃 덩어리, 복수초가 나타났다. '사랑을 택해 아버지에게서 숨어버린 여신이 꽃이 되었다'는 복수초. 이들이 찾아 떠난 '영원한 행복'이 꽃말이 되었다고 한다. 산 위로 오를수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진다.

언덕을 하얗게 수놓은 풍도바람꽃과 줄기에 아기 같은 솜털이 부송한 노루귀가 곳곳에 피었다. 풍도에서만 볼 수 있는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 앞에 사진 동호회에서 출사 나온 이들이 무리지어 있다. 꽃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접사를 한다. 경배하듯 카메라에 꽃을 담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잠시 이방인이 된다.

다시 은행나무 아래 서니 둥글게 펼쳐진 마을과 바다 저편 육지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가 대조된다. 밤새도록 건너편의 초록색 불빛을 바라보던 영화 속 '개츠비(Gatsby)'가 떠오른다. 그가 믿었던 초록 불빛은 삶에 얼마나 밀착해 있었을까.

야생화는 키 큰 나무들이 잎을 뺀기 전에 낮고 짧게 꽃을 피운다. 눈[雪]을 뚫고 나와 피는 복수초는 벌을 유혹하기 위해 노란 꽃잎을 더욱 반들반들하게 만든다. 갯가에서는 굴과 바지락을 캐고, 산에 지천인 나물을 캐던 섬사람들은 야생화를 닮았다.

“선착장이 없던 시절엔 섬 가까이 온 배가 풍랑으로 정박하지 못하고 섬 주변을 맴돌다 다시 떠나야만 했다.”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풍도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말한다.

신비로운 야생초와 아름다운 풍경이 사람들의 발길에 훼손되지 않도록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봄의 전령사 복수초의 꽃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돌절구와 절굿공이,
장화 두 켤레, 줄에
매달린 망둥이, 아귀가
빨래와 함께
별을 받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야생화의 보고(寶庫)… “그 섬에 가고 싶다”

풍도[안산시 단원구 풍도길 28(풍도동)]는 대부도에 딸린 1.5km²의 작은 섬이다. 대부도로 부터 약 24km 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충남 당진이, 동쪽으로는 화성시와 인접해있다. 주민은 60대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이며 26세대, 60여 명(82가구, 120여 명)이 산다. 단풍 나무가 많아 풍도(楓島)라고 불렸으나, 청일전쟁의 첫 전투인 풍도해전에서 승리한 일본이 풍요롭다는 뜻의 풍도(豊島)라 한 뒤로 우리 문헌에도 풍도(豊島)로 표기돼 굳어졌다.

파도 타고 역사 속으로~

661년 풍도 앞바다는 서해안의 중요 뱃길이었으며,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와의 전쟁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풍도 언덕에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894년에는 풍도해전을 신호탄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된다. 그 당시 섬 주민들은 청군의 시신을 외면할 수 없어 산기슭에 무덤을 만들어 묻어주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UN군이 길목에 있던 풍도에 들러 태극기를 꽂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풍도의 비밀정원

풍도는 야생화 천국이다. 풍도에 야생화가 많은 까닭은 사람의 간섭이 거의 없고 해양성 기후여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데다 비가 적당히 오기 때문이다. 봄·가을에 풍도를 거쳐 가는 많은 새 덕분에 식물이 잘 자란다는 분석도 있다.

눈을 뚫고 피는 봄의 전령사 ‘노란 복수초’, 봄바람에 하늘거리며 언덕을 하얗게 수놓는 ‘풍도바람꽃’, 꽃이 피면서 붉은 빛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풍도대극’, 꽃이 지고 나면 노루귀 모양의 잎이 나온다는 ‘노루귀’ 등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뤄 이미 야생화 촬영지로 유명

세를 타고 있다.

풍성한 산채와 수산자원

풍도는 봄이면 두릅나물이 지천이고 철, 동굴레, 산더덕 등 약초들이 넘쳐난다. 이들 산채와 한약재는 주민들의 소득원이 된다.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섬과 섬 사이 물살이 거센 편이라 봄·가을에는 꽃게가 많이 잡히며 가을에는 학꽂이를, 물때를 잘 맞춰 가면 갯바위에서 우럭, 노래미 등을 잡을 수 있다.

민박을 운영하는 이종미 씨(58세)는 점심 손님에게 농어매운탕, 전어튀김, 사생이나물과 사생이전, 달래무침, 고추장아치를 내놓았다. “울릉도와 풍도에서만 나는 사생이나물과 직접 농사지은 고추로 만든 반찬이니 남기지 말고 드세요. 전어도 절여서 말렸다가 튀긴 거예요.”라며 “주말에는 보통 400~500명이 풍도를 찾아 정신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거실을 내주며 정성껏 식사를 챙겨내고 있습니다.”라며 분주히 손을 놀렸다.

풍도 둘러보기

해안산책로 - 풍도마을체험관 - 동무재길 - 은행나무 - 청옆골해변 - 후망산등대 - 풍도의 비밀정원(야생화군락지) - 청나라 군사 잠든 곳 - 북배 - 북배편목
민박집에서 뜨는 해를 맞고, 등대를 따라 걸으며 몽돌해안의 전망과 잔잔하고 푸른 바다를 감상하고, 붉은 바위에서 황홀한 노을을 볼 수 있는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풍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에 자칫 원래 주인인 야생화가 다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안산시 풍도는 4월말까지 개방한 후 5월부터 1년간 휴식기를 갖는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해양수산부, 세월호 사고현장 방문



“인양 준비 완료… 3주기인 4월16일, 목포 신항에 입항할 것”

세월호가 곧 인양될 전망이다. 물살이 약해지는 다음달 5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40미터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가 3주기를 맞아 세상에 다시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 15일, 안산시와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인양 준비 작업이 한창인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월호 3주기인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입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현재 해저에서 이뤄지는 준비는 완료됐다. 오는 21일과 다음달 5일이 물살이 약해지는 시기지만 여러 여건 상 21일 보다는 다음달 5일이 적당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상여건이 중요해 3일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수습 가족들은 “하루빨리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하게



있다.

또한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증거가 없어진, 벌집이 된 선체라도 꼭 보고 싶다”며 간절히 인양을 촉구했다.

인양을 마침으로써 미수습자들을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들을 찾는 게 최우선이다. 또한 조사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을 방문한 안산시 관계자도 미수습 가족들과 뜻을 함께 하며 “날씨만 좋으면 오는 4월에 진짜 인양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돼서 기쁘다. 아무쪼록 날씨가 도와줘서 3주기가 되기 전에 인양이 꼭 되기를 바라며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차질 없이 전원 수습되기를 함께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현재 세월호에 구멍이 한 14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1m40, 1m60 정도의 큰 구멍도 7~8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거인멸을 우려한 바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짐승처럼 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당신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무뎌지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 시그널을 몇 번 더 들었을 때, 그제야 처음에 나오는 음향이 ‘거세게 부는 바닷바람에 수많은 리본들이 부딪히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416의 목소리’는 그렇게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인다.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해 삶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난 사람들, 도저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낮은 신음소리가 오랫동안 깊게 남아있다.

416기억저장소 주관으로 CBS 정혜윤 PD가 제작을 맡고, 김탁환, 오현주, 함성호 작가가 돌아가며 진행하는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는 지난해 1월 15일 ‘경빈 엄마’ 전인숙 씨의 이야기를 첫 회로 현재까지 시즌2를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학생의 부모,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했던 민간잠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털어놓는 이야

기를 만날 수 있다. 신문이나 TV에서 보았던 세월호 참사가 아닌, 개개인이 겪은 진도와 팽목항, 안산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던 것들. 2014년 4월의 팽목항이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장소였다는 것을, 뉴스만 틀면 나오던 바다에 기울어진 채 떠 있던 세월호가 누군가에게는 몇 번이고 충격을 당하는 듯한 고통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같이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 주검으로 돌아온 내 아이를 먼저 찾아서, 당장 배 밖으로 나오라는 전화 한통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평생의 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 모른다. 주인 잃은 비행기 표를 들고 새하얀 아들 여권에 출국 도장만 찍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1년간 실어증을 앓던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 삶의 의미라고 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2014년 4월16일 이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모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뉴스들을 신문과 방송에서 들었지만, 집단이 아닌 개별적인 한 사람이 온 몸으로 통과했던 고통의 시간들은 처음 들었던 이야기였다. 목이 메어와 흔들리는 목소리, 언어에 담길 수 없는 깊은 한숨과 침묵이 전파를 타고 출근길 버스에, 주방 싱크대 앞에 닿을 때, 눈물로도 공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음을 알게 된다. ‘416의 목소리’ 부제는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이다. 4월의 봄을 기다리며 한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와 운명을 잠시 빌려주는’ 마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416의 목소리’는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 팟캐스트와 ‘팟빵(www.podbbang.com)’, 416의 목소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416voice)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영어 멘토링 &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동산고 · 송호고 학생들 참여... 초등 영어 지도



지난 3월 4일,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에서 1:1 영어 멘토링 '리딩 버디(Reading Buddy)' 첫 수업이 열렸다. 동산 · 송호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멘토 13명과 초등 2~6학년 24명의 멘티들은 자기소개 등 인사를 나누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리딩 버디'는 멘토가 두 명의 멘티를 시간별(10시, 11시)로 맡아 1시간씩 영어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서활동 후 멘토와 멘티는 제1,2 영어 자료실에서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을 함께 고른다. 이들이 선정하는 책은 멘토에게 대출해주어 미리 책을 읽고 다음 수

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리딩 버디'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동산고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멘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송호고 학생들도 참여한 가운데 6월 17일까지 월 2회, 총 8회로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멘토로 참여한 엄민주 학생(동산고 2)은 "낮가림이 심하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던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미리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도 찾아보고, 영상이나 프린트를 제작하는 등 노력하다보니 마지막 날엔 아이들이 손 편지도 써 주더라구요. 보람 있는 봉사라 여겨져 올해도 신청했습니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북 아트를 활용한 엄마표 영어 '맘스 잉글리쉬 북 아트(Mom's English Book Art)',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초등 대상 영어책읽기 '스텝 업 리딩(Step-up Reading)', 영어동화책으로 알파벳과 파닉스를 익히는 유아 · 초등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 등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열어 특성화 브랜드 도서관으로 다가가고 있다.

◇ 문의 :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031-481-389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별망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가 정한 약속 우리가 지킬게요!”



별망중학교(교장 최귀숙)는 지난 3월 2일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이를 동안 2017학년도 새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기간을 운영했다.

인권교육, 교가 부르기 및 학급생활 적응활동, 학급 공동체 약속 정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봉사활동 사전교육, 학교 스포츠동아리 안내와 편성이 첫째 날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도서관 이용방법과 정보윤리교육, 영재학급과 고입 안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혁신학교 학생 연수, 가정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동안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생활을 다짐했다.

학교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학급 공동체의 약속'을 정하는 시간에는 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학급 구성원들이 직접 학급의 규칙을 정함

으로써 자주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2학년 4반 학생들은 '친구를 존중하자.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자.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경청하자. 수업시간에 발표와 호응을 많이 하자. 고운 말을 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등 '하자'의 약속으로 정했다. 또한 '하지 말자'의 약속은 '욕하지 말자. 화장하지 말자. 친구와 싸우지 말자. 수업시간에 자거나 떠들지 말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하지 말자.'로 정했다.

이수진 별망중 연구부장은 "1년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정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신입생은 내가 다니는 학교를 좀 더 빨리 체험한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입생 유민준 학생은 "중학생이 되어 많이 낯설고 잘 모르는 학교에 등교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입학식을 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을 안내받고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린듯합니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별망중학교(031-482-3263)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3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생태와 환경』



재미있는 숲 이야기

저자 김보경 / 출판사 다른세상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숲 속의 사계절 자연 학교로 아이들을 안내한다. 딱딱한 해설이 아닌 재미난 이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나누어 자연 생태계를 생생하게 소개시켜주고 있다. 숲은 늘 같은 모습을 지는 곳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수록된 자연 학습 요소를 두루 다루고 있다.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저자 박경화 / 출판사 북센스

이 책은 핸드폰,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물건들이 지구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환경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 내가 별 생각없이 하는 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보호하는 실천 방법들, 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도시의 공원

저자 케이티머론 / 출판사 마음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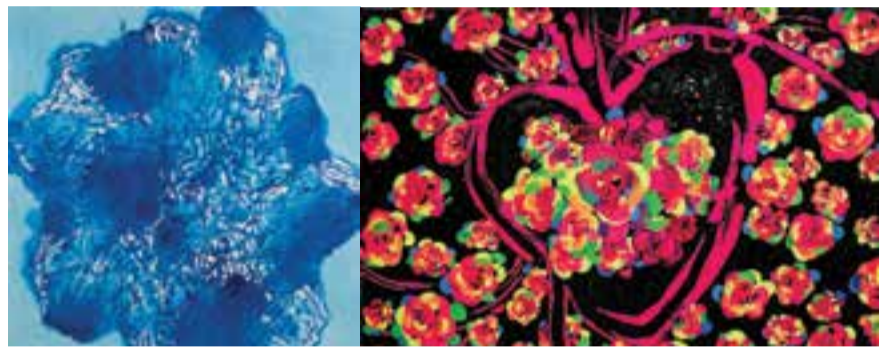
공원을 기억하는 열여덟 명의 이야기!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 런던의 하이드 공원, 파리의 뒤흐상부르 정원,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 더블린의 아이비 정원 등 각 도시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원은 콘크리트 같은 도시인의 메마른 마음을 치유해주고, 삶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도시의 공원』은 공원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열여덟 명의 글을 담아낸 책으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저자의 직업에 따라 글 스타일도 각각각색이다.



'봄을 쏘 놓다'... 미술관에 꽃이 피어납니다!

봄을 맞아 야생화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머지않아 뽕얀 속살을 드러낼 목련과 울긋불긋 진달래가 활짝 피어나고,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게 빛나는 벚꽃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다. 얼었던 대지를 물들이는 푸른 봄기운과 함께 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꽃이 아닐까 싶다.

단원미술관에서는 오는 3월 30일부터 꽃과 봄이라는 소재를 담은 기획전 '봄을 쏘 놓다' 전시가 열린다. 12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평면,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으로 단원미술관의 1관과 2관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인 '봄을 쏘 놓



다'의 쏘(수)는 '빠어날 수'라는 한자의 음을 사용해 "그야말로 빠어날,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업들로 화사한 봄의 감흥이 단원미술관 가득 흘러넘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했다. 이와 더불어 '성장하다, 자라다, 피다'라는 다양한 뜻의 쏘(수)와 봄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들이 어우러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12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꽃과 봄, 위로와 밝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시는 푸른색을 기조로 사유의 정원을 그리는 김선형 작가의 작업을 시작으로 우리 삶에 대한 위로를 밥 위에 피어난 꽃으로 그리는 임영숙,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시리즈의 섬유예술가 장혜홍, 모란꽃에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담은 김근중,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제미영, 시를 지어 그림으로 그리고 설치와 영상으로 전개하는 퓨전동양화가 홍지윤, 행위예술가 신용구의 붉은 꽃, 한승구 작가의 종이접기 하트 만든 꽃, 김영은&남상훈의 인터랙티브 작업, 설치미술가 노동식의 민들레 작업과 프로젝트그룹 슴, 쉬다의 물고기의 꿈, 황혜선 작가의 풍선 작업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전시는 5월 28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유료(2,000원, 안산시민은 1,000원)이다. 꽃과 봄을 소재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봄이 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몸소 느껴보자.

◇ 문의 : 안산시 단원미술관(031-481-0508), <http://www.danwon.org>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여성비전센터 "추억을 돌려드립니다"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파일로 무료 변환 서비스



대부분의 가정에는 인생주기별 개인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비디오테이프가 보통 몇 개씩은 있다. 본인의 결혼식이 담겼거나 부모님 회갑연, 자녀의 돌잔치 등 버릴 수 없는 것들이다. 30여 년 전 상기된 표정의 신랑신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습, 이젠 장성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오롯이 담겨있지만 손쉽게 틀어 볼 수가 없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안산시 여성비전센터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 영상을 디지털로 무료 변환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족행사가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각 가정별로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40가정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 서비스는 한 시민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6년 하반기 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한 동영상 촬영 편집 강좌를 이수한 회원들이 동아리를 결성해 봉사하면서 실행될 수 있었다.

'디지털 무료 변환 서비스'가 무척 반가운 홍정재(45세, 본오동) 씨는 "당시에만 몇 번 틀어보고 15년 넘게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던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가족의 추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여러 개인데, 올해 대학생이 된 큰 아이한테 유치원 재롱잔치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바꿔 입학선물로 줄 계획으로,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규석 안산시 평생학습과장은 "잃어버린 가족의 꿈이나 소중한 추억을 다시 한 번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내년 1월까지 계속되는 이 서비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비전센터(031-481-276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립국악단 & 과천시립교향악단 교류음악회... "선율로 하나 되다"



안산시립국악단은 오는 4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과천시립교향악단과 환상의 하모니로 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 1부는 과천시립교향악단(지휘자 서진), 2부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리고 3부에서는 두 악단이 합동 무대를 갖는다. 동서양의 음악을 폭넓고 풍성하게 준비한 무대이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진한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과천시립교향악단 서진 지휘자가 이끄는 1부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Festive Overture in A Major, Op.96)'으로 연주회의 문을 열며, 이어

안산시립국악단의 김성민 악장이 태평소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을 협연한다. 또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Adagio for Strings, Op.11)', '윌리엄 텔 서곡(William Tell Overture)'으로 클래식 아름다움과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2부는 안산시립국악단과 임상규 지휘자가 대단원의 막을 연다. 우리음악을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을 주제로 작곡된 '아리랑 환상곡'으로 시작, 과천시립교향악단 악장 유재원의 협연으로 '지고이네르바이젠(Zigeunerweisen, Op.20)' 바이올린 협주곡이 이어진다. 또한 창작 국악가요인 '몽금포 가는 길', '난감하네' 등으로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며, 마지막 무대는 해금 협주곡 '추상'으로 안산시립국악단의 음악적 역량을 과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백대웅 작곡의 '남도아리랑'으로 안산시립국악단과 과천시립교향악단 100여명 단원들이 국악과 양악이 하나 되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 아름답고 흥겨운 선율을 들려 줄 계획이다.

관람은 7세 이상 가능하며 요금은 전석 10,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립국악단 (031-481-4097)으로, 예매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www.ansanart.com)으로 하면 된다.



안산시,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

“대부도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대부도 상동 및 고랫부리 연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준비를 완료하고 3월 8일 해양수산부에 최종 건의했다. 대부도 갯벌은 해안 염생식물의 분포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시는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해양생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주민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지정 면적 4.53km²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지는 다양한 염생식물 군락지와 104종의 대형 저서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으로,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보호대상 해양생물 ‘흰발농게’ 서식지와 법적보호종 바닷새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이 출현하는 취식지 및 휴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 031-481-2337

안산시, 일자리 찾기 ‘기업 생생정보통’ 운영

최신 기업정보 수집 · 체계화...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일자리 찾기를 위해 ‘찾아오는’ 구직자 위주의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맞춤 발굴로 전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업 생생정보통’은 일자리센터와 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가 3인 1조로 협업하여 반월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매주 화요일 방문하는 방식으로, 작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직자가 일할 작업 환경을 미리 파악한 후 안산시청 일자리센터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시는 반월산단 기

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빈 일자리 발굴로 구인·구직 일자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반월산단 우수 기업 탐방으로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취업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기업 생생정보통’ 운영 관련 사항은 안산시 일자리센터(☎481-2882)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100억 원 예산, 시민의 손으로 직접 편성



안산시가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미니멈(minimum) 제’를 도입했다.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최대 얼마까지 반영하는 실링(ceiling)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안산시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한 제도다. 이를 통해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일 바쁜 직장인들을 고려해 저녁 또는 휴일에 개최하는 ‘직장인 맞춤형 지역회의’를 새로이 도입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할 예정으로, 동 지역회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제안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된 후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던 ‘청소년 예산 제안 대회’를 다시 추진, 미래세대의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2005년 선도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 후 수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와 성과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를 더욱 늘리고 민주적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우리 시에 특화된 ‘안산형 주민참여 예산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예산과(031-481-3031)

특별
기고

올바른 112신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초석



요즘 국민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는 '보이스'라는 범죄스릴러 드라마를 보면, 국민 대부분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주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112로 신고한다. 112 신고는 1957년 7월 개설되어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의 비상벨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112 신고 건수는 2013년 322만7천434건에서 2016년에는 328만4천849건으로 4년 만에 1.8% 증가한 반면, 비(非)출동신고는 2013년 119만3천959건에서 2016년에는 160만9천32건으로 4년 만에 35%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신고자가 긴급 범죄신고 전화임에도 범죄와 관련 없는 자신의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12 신고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급 범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민첩성이 약화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2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고 있다. 또한 112 신고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 매년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해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개선과 변화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 현장상황, 피해상황을 말해주지 않아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까? 첫째,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를 경우 현재 주변에 보이는 큰 건물, 간판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112신고 시스템 상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어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둘째, 신고자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그 개별번호(숫자7, 영문1)를 알려주거나, 전봇대가 없으면 노상변압기 오른쪽 상단 번호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신고자 주변에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선 및 공중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신고자가 말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넷째, 신고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휴대폰에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지피에스는 20미터 내외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와이파이는 지하나 건물내부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고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신고자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납치) 현장에 있어 112로 신고할 수 없을 때는 문자를 활용하자.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혹 문자를 보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면 그냥 통화 버튼을 누르고 현장상황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올바른 112 신고 요령은 나의 안전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전영태

독자
기고

김영란법 제대로 어진(?) 아름다운 안산 청년



30여 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모 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셨다.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병역의무의 중요성,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 잘 안다.

과거 유명가수 유 모씨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돈도 벌고 잘나가다가 군대 갈 날이 다가오자 미국으로 출행량을 쳐 미국시민이 되었다. 그때 당시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며칠 전 이웃집에서 큰아들이 군대를 간다며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다. 평소에게 가깝게 지내왔고 참 바른 인성을 가진 청년이라 늘 '탐나는 아들'이라 생각하던 터였는데, 그가 군대를 간다기에 선뜻 용돈까지 쥐어주며 장도를 축하해주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입대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일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공개한다. 참 '아름다운 안산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훈훈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오래전 아버지가 병무청에 재직 당시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측정결과 신체등위 4급 보충역 대상으로 나온 청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꼭 현역으로 가고 싶다며 다시 측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서 아름답고 순수한 의지를 엿본 아버지는 스트레칭으로 그의 몸을 이완시키면서 잠시 병무카드를 들여다보니 그 청년이 사는 곳이 우리 안산시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더 눈여겨보고 잘 되도록 마음으로 응원을 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측정했으나 여전히 기준에는 못미쳐 현역으로 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지방병무청 간부이긴 했지만 키가 작거나 체중이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을 억지로 입대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재임 중 그게 두고두고 미안했노라고 하셨다. 하지만 당당하게 현역복무를 꼭 하고 싶어 하는 본인과의 가족들을 보며 우리 젊은이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 법으로 치자면 '김영란법'에 딱 걸릴 수 있는(?) 청탁이지만 자발적으로 군대에 꼭 가고 싶다는 불법 아닌 불법 사례가 항상 넘쳐났으면 좋겠다.

● 전상길(단원구 초지2로)



대한적십자사 안산지부 '달봉 봉사회' 사1동에서 '어르신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지난 3월 17일 푸른마을 5단지 경로당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진촬영이 있었다. 적십자사 안산지부 사1동 '달봉 봉사회(회장 추영희)'가 70세 이상 동네 어르신 140분의 장수사진을 찍어드렸다. 자원봉사에 나선 안산대학교 뷰티아트과 학생들은 화장으로, 머리손질로 어르신들의 얼굴에 내려앉은 세월의 흔적을 지워드리려 노력했고,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학생들의 카메라 앞에 선 어르신들은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각자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정(86세) 모 어르신은 “영정사진을 찍어준다 길래 큰 며느리와 딸한테 말하고 왔다.”며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좋다.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했다.

학생들과 봉사활동에 나온 서수웅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교수는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감회가 새롭다. 또, 제자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자긍심을 갖게 돼 뿌듯하다. 실력 향상은 덤이다.”고 말했다.

이날 촬영은 사1동 11개 경로당 총회장 이상들 어르신의 제안을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사진은 보정작업을 거쳐 액자에 담겨 어르신들께 전해진다. 한국가스공사 안산지부가 후원했고, 대한적십자사 달봉 봉사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어르신들의 안내와 접수를 맡아 진행을 도왔다. 사1동 자율방범대 노현민 사무부장은 어르신들을 자동차로 모시며 편안하고 안전한 촬영을 지원했다.

추영희 회장은 “오늘 이 시간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사1동 주민센터 (031-481-508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제10회 안산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사진 한 장으로 담아내는 안산의 이모저모



2016년 금상 - 서병태 어촌체험

안산시는 안산9경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 및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안산의 모습을 주제로 안산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안산의 사계절 및 생태도시 안산의 모습(철새, 습지) 등 안산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살린 주제로 범위를 확장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안산의 매력적인 모습을 잘 담아낸 공모전 우수작품 75점에 대해서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작품은 안산시를 홍보하는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1인 4점 이내의 흑백 및 컬러 사진을 출품할 수 있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홈페이지(www.paskansan.com)에서 출품표를 다운로드 받아 사진과 함께 웹하드(www.webhard.co.kr ID : photo7038, PW : 7038)에 등록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2일 17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관광홈페이지(http://tourinfo.iansan.net)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모전 관련문의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031-483-5852)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 031-481-2722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3월

주꾸미

주꾸미의 효능

- 콜레스테롤 감소 :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으로서 주꾸미는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의 5배나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증이나 지방간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좋습니다.
- 두뇌발달, 다이어트 효과 : 주꾸미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타우린은 두뇌발달과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맛있는 주꾸미 고르는 방법

- 산란기가 5~6월이라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알이 꽉 차 가장 맛있습니다.
- 머리와 몸통이 탱탱하고 다리 흡반이 뚜렷할수록 좋습니다.

비슷한 주꾸미와 낙지 구분하는 방법

- 주꾸미는 낙지에 비해 몸집이 작고 다리가 일정하게 짧습니다.
- 낙지는 빨 속을 좋아하고 주꾸미는 오목한 바닥이나 소라 껍데기를 좋아합니다.

봄에만
즐길 수 있는
알이 꽉찬 주꾸미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돌연사란 무엇인가?



돌연사란, 평상시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이 심장병 증상이 발생한 지 1시간 이내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는 대부분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통계가 없으나 천 명 당 한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눈에 띄게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연사의 10%는 심장 펌프기능의 치명적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는 심한 심근경색이나 내출혈로 심장이 압박되는 심낭압전, 대동맥파열, 체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버리는 폐동맥혈전색전증 등이 원인이며, 돌연사의 90%를 차지하는 부정맥은 심실빈맥이나 세동과 같은 악성 심실성 부정맥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런 심장병 없이 돌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열 명에 한 명 정도뿐이고 대부분은 기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 혈관의 죽상 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이며, 생활습관 개선과 투약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1. 담배를 끊는다. 2. 술을 절제한다.
3. 규칙적인 운동으로 복부비만을 해소하고 팔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4. 적절하게 체중을 관리하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반드시 치료 한다.
5. 주치의 상담과 정기검진을 통해 공복 및 식후의 혈당과 중성지방을 측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전도, 심장초음파도, 말초동맥경화 검사 및 경동맥도플러 검사 등을 실시해 허혈성심장 질환을 조기에 예방 혹은 색출한다.
6. 약물 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치명적 부정맥은 체내에 인공 심박 조율기나 자동 심실제세동기라는 기계를 이식하여야 하므로 돌연사 내력의 가족력 등의 고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미리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 이호준_더베스트내과 대표원장(현 안산시의사회 회장)

예방·조기검진·적극치료, 암 정복 삼박자 ‘암 예방의 날’ 맞아 시민건강 강좌 열려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지난 3월 17일, 암 예방의 날에 앞서 아주대학교 건강증진센터 김진홍 소장을 초빙해 건강강좌를 열었다. 김 소장은 이날 강좌에서 “우리 몸에는 매일 암 세포가 생기지만 몸이

건강할 때는 정상세포가 공격을 막아낸다. 피로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에 걸려 심신의 균형이 깨지면 암 세포가 점점 세력을 키워 몸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는 손을 써도 늦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암 정복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과 조기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암 발생의 3분의 1은 건강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검진과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와 생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암 예방의 날이 3월 21일로 정해진 것도 이 점 ‘3-2-1’을 상징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상록수보건소 유현 소장은 “우리사회 사망원인 1위가 암이지만, 암은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은 질병”이라며 “보건소에서도 매년 암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이 태어난 해의 짝수 홀수 해에 맞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박미진(51세) 씨는 “65℃가 넘는 뜨거운 음식물의 지속적인 섭취는 식도에 좋지 않고 늦은 밤에는 물조차도 우리 몸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들을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031-481-590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교육센터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혈당기도 드려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건강의 적신호 고혈압과 당뇨병을 막기 위한 2017년 안산시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됐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교육센터(이하 고당센터)는 시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은 혈압이 높고 오줌으로 당분이 새어나오는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증 심뇌혈관 질환과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선행 질환이다. 지난해 고당센터 등록관리 사업에는 150명이 참여해 80%에 이르는 126명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당화혈색소 감소 등을 이뤄냈다. 사업 참여자들은 무료로 제공된 혈당기와 혈당검사로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1일 1회 기본으로 자가 혈당체크를 했고, 영양사와 1:1 맞춤상담으로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등 질환 관리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혈당관리의 자신감을 얻었다.

고당센터는 올해에도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고혈압·당뇨병 제대로 알기와 영양교육 2회 이수, 체중 3kg 감량, 매일 식사일지 작성, 당화혈색소 관리 등에서 1가지를 이뤄내면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방식에서 기인하는 성인병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등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떨쳐내게 돕는 것으로,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에 참여하면, 질환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관리 식이요법 등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교육센터(031-416-908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Food Waste
음식을 쓰레기 잘 먹고 잘 버리자!

음식을 쓰레기통에 넣은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용기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깨끗한 생활이 우리 환경을 지킨다는 사실과 잘 먹는 것만큼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03 쓰레기 잘 버리기 캠페인